

“기술위 때문에 감독 못해먹겠다”

조광래 대표팀 감독 대폭발 왜?

“중복 차출 선수들 일방적 교통정리
선수 선발 감독 고유권한 침해받아
기술위원장, 대표명단 내팽개쳤다”

대표팀 조광래 감독이 선수선발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 이회택 기술위원회장과 기술위원회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한마디로 폭발했다.

조 감독은 23일 축구회관에서 대표팀 명단을 발표한 직후 “국가대표팀을 가장 앞장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기술위원장 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기술위원회의 독자적인 선수선발 결정으로 감독 업무 수행의 본질적이고 고유 권한인 선수선발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어느 대표팀에서도 자행된 적이 없는 사태다. 특히 대표팀 코칭스태프가 차출 대상 선수명단을 전달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술위원장 이 명단을 함부로 내팽개 쳐 버린 행위는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조 감독은 기술위원회에 질문을 던지며 답변을 공식 요구했다. ‘선수 선발에 대한 기술위원장의 권한과 감독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 ‘국가대표 감독의 언론 인터뷰 시 협회의 사전 통제



대표팀 조광래 감독이 23일 축구회관에서 작성한 듯 기술위와 갈등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임진환 기자 photolim@donga.com 트위터 @binytala

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등을 물었다.

●갈등의 핵심은 기술위의 선수선발

기술위는 9일 축구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성인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선수들의 선발에 대해 직접 개입했다. 기술위는 구자철, 지동원, 김보경은 올림픽대표 우선 선발, 대표팀은 김영권, 홍정호, 윤빛가람 선발을 결정했다. 그리고 올림픽팀 소집 해제 후 구자철, 지동원, 김보경은 조 감독의 요청이 있으면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했다.

조 감독은 당시 “기술위는 선수 선발에 대한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냐”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기술위는 “조 감독과 올림픽팀 홍명보 감독이 갈등을 빚고 있어 기술위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기술위의 선수선발 권한 있다(?), 없다(?)

조 감독은 기술위가 선수 선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술위의 입장은 다르다. 기술위도 선수 선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애매한 협회 정관 때문에 입장이 엇갈리는 것이다.

협회 정관 중 국가대표축구단 운영 규정을 보면 제4조에 ‘각급 대표선수의 선발 및 해제는 감독의 건의에 따라 협회가 승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감독이 선수를 선발하고 협회와 기술위는 승인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협회 정관 제7장 분과위원회 부분 제 50조 1항에는 ‘기술위원회는 선수와 지도자의 양성, 각급 국가대표급 지도자와 선수의 선발, 축구 기술 발전 및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한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하면 기술위도 선수 선발에 관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선수 선발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를 놓고 양측은 극명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입장차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 @gtyong11

포지션	선수(나이)	소속	A매치(출전/득점)
GK	정성룡(26)	수원	32/-23
	김진현(24)	세레소 오사카	0/0
	김영권(28)	울산	14/-10
	이정수(31)	알 사드	39/5
DF	홍정호(22)	제주	7/0
	이재성(23)	울산	0/0
	이상덕(25)	대구	0/0
	황재원(30)	수원	11/1
MF	차두리(31)	셀틱	58/4
	박원재(27)	전북	5/0
	김재성(28)	포항	11/1
	김영권(21)	오미야	3/0
FW	윤빛가람(21)	경남	9/2
	이흥래(25)	수원	9/0
	김정우(29)	상주	61/5
	기상용(21)	셀틱	38/5
FW	고명진(23)	서울	0/0
	신형민(25)	포항	6/0
	구자철(22)	볼프스부르크	17/7
	남태희(20)	발랑시엔	1/0
FW	이청용(23)	볼턴	38/5
	이승환(26)	전북	3/0
	이근호(26)	감바 오사카	33/9
	김보경(21)	세레소 오사카	9/0
FW	박주영(26)	AS모나코	50/16
	지동원(20)	전남	9/5
FW	정조국(27)	오세르	12/4

‘애제자’ 정조국·고명진 발탁

조광래 감독의 애제자 2명이 대표팀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조 감독은 6월 예정된 2차례 평가전(3일 세르비아, 7일 가나)에 나설 27명의 태극전사 명단을 확정해 23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조국(오세르)과 고명진(서울)의 발탁이다. 둘은 조 감독이 서울의 전신 안양LG에서 지휘봉을 잡았을 때 프로에 데뷔시킨 선수들이다. 조 감독은 “정조국은 최근 컨디션도 좋고, 골 맛도 봤다. 유럽축구에 적응을 잘 하고 있어 지동원의 올림픽대표 차출에 대비하기 위해 뽑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명진은 서울 미드필드에 핵심 자원이자. 침투 패스 능력이 좋아 선발했다”고 덧붙였다.

최용석 기자

“대표 명단 내팽개쳤다면 위원장 사임”

●이회택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

조광래 감독의 발언은 유감스럽다. 조 감독의 말처럼 기술위원회가 선수 선발에 관여한 것은 맞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을 보면 기술위도 선수 선발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다. 기술위 회의 이전에 조 감독을 4~5차례 만나 올림픽대표

팀에 일부 선수를 보낼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적으로도 만났고, 기술위원을 보낸 적도 있다.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기술위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내가 대표팀 명단을 내팽개쳤다고 했는데 그런 기억은 없다. 그랬다면 기술위원장직을 내놔야 한다. 협회(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코칭스태프

와 만나 명단을 넘겨받았고, 감정이 상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 명단은 기술위원들에게 회의석상에서 전달했다. 이번 일은 개인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대표팀은 협회 내에 하나의 조직이다. 조직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조 감독은 내가 뽑은 감독이다. 그런 감독을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나. 조 감독도 조직에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불쾌하고 언짢은 일이 있어도 참으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택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 @Bergkamp08

편집 | 김진환 기자 jhapoo@donga.com 트위터 @ajapoo



박예원 추가시간 역전골...10연승 축포

고양대교, 라이벌 현대제철 2-1 제압
수원시시설공단, 스포츠토트 3-0 대파

고양대교가 올 시즌 10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고양대교는 23일 보은종합운동장에서 열린 'IBK기업은행 WK리그 2011' 10라운드에서 '라이벌' 현대제철에 2-1 역전승을 거뒀다. 전반 13분 현대제철 이세은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5분 뒤 고양대교 골잡이 쵸레치나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승부는 후반 종료직전 갈렸다. 후반 추가시간 고양대교 박예원의 극적인 결승골이 터졌다.

고양대교는 올 시즌 10전 전승(승점 30)으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단독 선두를 굳게 지켰다. 작년 시즌 막판 7연승을 합치면 무려 17연승이다. 반면, 2위를 달리던 현대제철은 6승2무2패(승점 20)를 마크하며 4위로 떨어졌다.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은 함안에서 신지에-김다솜-김나래의 연속 골로 스포츠토트를 3-0으로 완파하고 6승3무1패(승점 21), 2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부산상무 역시 권하늘-유영아-한성해가 릴레이 골을 터뜨려 국민체육진흥공단을 3-0으로 이겼다. 고양에서는 충남 일화와 서울시청이 득점 없이 비겼다.

윤택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 @Bergkamp08

공부만 잘하는 하버드대? 축구도 잘하네

고려대와 친선경기 2-1 역전승

5월의 푸른 열정과 후끈한 열기가 대학 캠퍼스에 메아리쳤다. 23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총장 김병철) 녹지운동장에서 한국대학축구 강호 고려대와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친선 경기가 열렸다.

예상과 달리 90분이 흐른 뒤 환호성을 올린 쪽은 하버드대였다. 고려대는 전반 16분 선승우의 골로 리드를 잡았지만 하버드대는 후반 교체 투입된 한인 동포 2세 알렉스 최의 동점 골과 종료 직전 터진 케빈 해링턴의 역전 골로 멋진 승리를 챙겼다. “부모님의 고향에서 골 세리머니를 하고 싶다”던 알렉스 최(경영 4년)의 꿈이 이뤄졌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하고 하버드대 선수단의 12박13일

방한 일정을 책임진 (사)한국과학기술캠프협회 성수목 회장은 “공부도 잘해야 운동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내 학부모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최고 명문으로 잘 알려진 하버드대 축구팀은 2009년 미국대학체육협회(NCAA) 아이비리그 정상에 오르는 등 1968년 이후 13차례 우승을 경험한 역사를 지녔다.

하버드대는 25일 서울대, 30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U-20 청소년 대표팀과 친선경기를 치른다. 또한 방한 취지에 맞게 22일 과천 국립과학관에서 글로벌 과학 창의 영어캠프를 연다. 28일과 2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개최할 계획이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고려대학교 김동철(오른쪽)이 23일 고려대 녹지운동장에서 열린 미 하버드대와의 친선경기에서 상대 선수와 치열한 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트위터 @k1sonectut

Talk Talk 사커
유쾌하고 뜻깊은 대화



“제대로 안뛰면 밀어버린다”

대전 최은성, ‘삭발’ 경고로 후배들 투지 자극

●...22일 선두권 포항과 대등한 경기력을 보인 비결은 대전 최고참이자 15년째 골문을 지키고 있는 ‘백전노장’ 최은성 덕분인데요. 포항전 이전까지 대전은 10경기 무승(3무7패)인데요. 하도 분위기가 침체돼 있다보니 강한 자극을 줄 필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최은성은 까마득한 후배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팀 내 두 번째 고태 최현을 까까머리로 만들겠다는 제스처를 취했답니다. “너희들, 주중 FA컵에서도 또 졸전하면 가만 안 뉘. 진짜 머리털 다 밀어버린다.” 생각지 못한 삭발 자극. 브라질 용병 박은호도 예외는 아니었죠.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자랑해온 박은호도 화들짝 놀라며 정신 무장을 단단히 했답니다.

“더블베드 양보할 게” 전남 고희열, 후배 기살리기

●...전남 정해성 감독이 21일 제주 원정에서 승리한 뒤 이운재, 송정현 등 고태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나타냈는데요. 원정 때는 2인 1실을 쓰는데 호텔 방이 더블베드 하나, 싱글베드 하나로 구성돼 있었답니다. 고태 급 선수들이 베스트로 뛰는 후배들이 편하게 잘 수 있도록 경기 전날 더블베드를 기꺼이 양보했다고 하네요. 코칭스태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정 감독은 “유스 출신 선수들이 최근 언론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그들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얼마 전 크게 한 번 혼을 냈는데 고태들이 이런 방식으로 기를 살려주니 팀이 끈끈해 질 수밖에 없다”며 만족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쟁자 라돈치치 귀국?” 조동건 이유있는 부활포

●...라돈치치가 오자 조동건이 골을 넣는다? 얼핏 보면 상관없을 것 같은 공식이지만 사실입니다. 성남 신태용 감독은 22일 울산 원정을 앞두고 공격수 조동건 때문에 울상이었습다. 이전 경기에서 수차례 완벽한 찬스를 날려버렸거든요. “그렇게 못 넣기도 힘들겠다”고 꾸짖었습니다. 신 감독은 울산과 경기 전 일부러 “(재활에서 회복한) 라돈치치가 5월 25일 입국한다”고 귀띔했습니다. 라돈치치와 포지션이 겹치는 조동건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대성공. 조동건이 울산전에서 2골을 터뜨리며 기대에 부응했죠. 경기에서는 비록 패했지만 신 감독은 조동건의 플레이에 만족을 보였습니다.

여름 왔지만...방출 공포 용병들 “출다 추위”

●...봄을 지나 여름으로 가고 있는데, 몇몇 외국인 선수들에게는 여전히 추운 겨울입니다. 방출 위기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천 허정무 감독이 잦은 부상에 시달리며 경기에 많이 나서지 못했던 루이지뉴(브라질)를 돌려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성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22일 울산 전에 카를로스(브라질)를 처음 출전시켰는데 테스트 무대였습니다. 신 감독은 “자신은 경기를 해야 컨디션이 올라온다고 하도 투덜거려 기회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세네”...亞챔스 상대 텐진 감독 K리그 관전

●...전북과 AFC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격돌할 텐진 테다(중국) 사령탑이 깜짝 출몰해 눈길을 끌었죠. 네덜란드 출신으로 중국대표팀까지 이끈 이력을 지닌 아리에 한 감독은 전북-강원전이 열린 2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을 방문했는데요. 전북 전력 분석을 위해 텐진 선수단보다 하루 빨리 한국에 도착한 한 감독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곧장 넘어왔습니다. 전북은 이날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강원을 괴롭혔는데, 한 감독은 전북의 화려한 공격진이 시도하는 슛 세례에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등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스포츠2부 축구팀

■ 스페셜 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1-156호 (2011.4.25)

트렁크 속이 이수라장?
애먹지 말고

에르고
ERGO

5.6월에 자동차보험 만기라면
지금 이 기회!

아래 번호로 보험료만 알아봐도
트렁크 정리함을 주니까!

▶ 기간: 2011년 6월 30일까지 (매일 선착순 20명 / 신규고객에 한함)

참두참미한 전화 번호
1544-1666

ERGO | 에르고다름 다이렉트*